

2011년
10월 15일
제 9 호



社友會報

서로 도우며
즐겁고
건강하게

• 발행처 사단법인 MBC사우회 100-702 서울시 중구 청동 22 TEL 02-722-7416 E-mail mbcsau@mbcsau.com • 발행인 강영구 • 편집인 이연현 • 편집장 한박무

MBC창사 50주년기념 1박2일 OB 초청 캠프

오늘의 MBC가 있게한 선배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 마음 전달

10/20~21 춘천 엘리시안 강촌
MBC가 창사 50주년을 맞아 퇴직사우를 초청해 1박2일의 캠프행사를 갖는다. MBC는 선배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MBC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방송사로 우뚝섰다면서 선배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MBC OB초청 캠프는 10월20일(목)과

웃놀이, 수목원 산책, 여흥놀이
행운권추첨등 푸짐한 행사
간편한 복장에 세면도구등은 챙겨야

21일(금) 이틀동안 강원도 춘천시 엘리시안 강촌에서 열리며 웃놀이, 수목원 방문, 검봉 국민미술 코스를 산책하게 된다. 또한 여흥놀이 행운권 추첨을 통한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
MBC는 퇴직사원 전원에게 이미 초청장을 발송했으며 참석여부도 개인별로 통보받았다. 참가를 희망한 퇴직사우들은 간편 복장에 운동화, 세면도구 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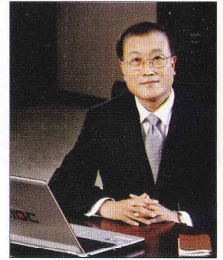
엘리시안강촌 리조트가 보인다. 묵은얼굴 묵은애기 꽃 피우며 MBC미래를 얘기하자

가지고 가야 한다.
출발시간은 오전 10:30이며 여의도 방송센터와 일산드림센터, 지하철 양재역 3번출구 등에서 버스가 출발한다.
문의사항이나 변동사항은 02-789-2224 MBC총무부 OB캠프 담당자에게 하면 된다.

퇴직사우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OB 초청 캠프 개최에 즈음하여

퇴직사우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김재철입니다.
높아진 하늘과 선
선해진 바람으로 완
연한 가을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올해는 MBC가 창
사 5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1961년 MBC 라디
오로 개국한 이래 MBC는 50년의 역사를 거
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방송사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있었던 선배님들의 수많은 노고
와 헌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에 진심으로 깊
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로운 50년을
향해 도약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추게 된 것 역
시 선배님들이 열심히 현장에서 뛰며 미래의
초석을 단단히 다져주신 덕분입니다. 올해
MBC는 '나는 가수다' 등 경쟁력 있는 프로그
램으로 시청률과 영향력에서 1등을 탈환했고,
K-POP 프로그램을 선도하면서 한류열풍의
중심으로 우뚝 섰습니다.

또한 MBC CHINA, 중동아프리카 지사,
중남미 지사 등을 연이어 개설해 콘텐츠 해
외 판매에서 큰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나
눔 프로그램을 확대해 감사하는 MBC, 함께
하는 MBC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
습니다.

급변하는 방송환경에서도 MBC가 늘 시청
자와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고 신뢰를 주는 방
송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력을 다하겠으
니 지켜봐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
내 평안과 건강 그리고 사우회의 무한한 발전
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10.
(주) 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 김재철

진주-창원MBC 합병 'MBC경남' 출범

김종국사장, 서부 경남 주민들에게 폭넓고 다양한 정보 제공

방통위, 8월 8일 합병 의결
진주MBC와 창원MBC가 통합
돼 9월1일(목) "MBC경남"으로 새
출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8일
(월) 전체회의를 열고 진주MBC와
창원MBC의 합병을 의결했다. 방
송통신위원회의 이와같은 결정에
따라 진주MBC는 43년간의 방송
을 마감하고 역사속에 묻히게 됐
다.
새롭게 탄생한 "MBC경남"은
진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제작

인력 150여명에 매출액 5백여억
원으로 부산MBC와 비슷한 규모
를 이루게 됐다. "MBC경남"은
15%에 머물렀던 지역 프로그램의
비중을 20%로 확대하고, 제작비
도 매출 대비 10% 이상을 투입해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
기로 했다. 김종국 MBC경남 사장은
"그동안 같은 경남권이었지만 지
청권역이 달라 한정된 정보만 접
했던 서부 경남 주민들에게 더 다
양하고 폭넓은 정보를 제공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통합 법인 MBC C&I 출범

MBC프로덕션과 미디어텍 통합

MBC프로덕션과 MBC미디어텍의
통합법인인 'MBC씨앤아이' (MBC
C&I, 사장 황희만)가 8월16일 출범
했다. 두 회사의 통합은 내-외부 방
송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아시
아의 대표적인 콘텐츠 및 미디어 서
비스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장기적
인 비전 아래 추진됐다. MBC프로덕
션과 MBC미디어텍은 1991년 1월
창사이래 20여년간 콘텐츠 제작과
유통, 방송제작기술과 방송 IT사업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역량을 과시
해왔다.



경 축

날마다 즐거운 꿈을 심으며
새 역사 가꾸는 우리의 보람
MBC 문화방송 빛의 메아리

“MBC 창사 50주년을 축하 합니다.”

(사)문화방송사우회 회원 일동

이 사람!

이제 '그랜마 송'을 마음에서 내려놓을 수 있다

- 전 아나운서 조석영씨 부부의 '청춘합창단' 오디션 스토리



▶70대부부 아내 박찬열과 글쓴이 조석영
1967년~1998년까지 MBC 아나운서, 비서실, 기획실, 연수실 근무

노래 부르는 것이 좋아서 올해 일흔 두 살이 되도록 성가대에서 동갑내기 아내와 함께 성가를 불러 오고 있는 내게 "KBS TV2 남자의 자격 52세 이상 노년 합창단원 모집" 스포츠는 눈에 번쩍 뜨이는 반가운 뉴스라, 마침 소속 극단에서 새롭게 시작할 연극 캐스팅 결정 바로 전날인 아내에게 연극은 잠시 접고 우리 한 번이 프로그램에 도전해 보자고 설득해 4월말 지원서를 제출했다.

5월이 다 지나가도록 아무런 통보가 없어,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우리 부부가 서류 심사에 떨어졌나 보다 하고 낙망하던 차에, 6월 초순 애타게 기다리던 오디션 참가 통보를 받았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3,000명 지원자 가운데 200명만 오디션에 부름을 받았다고 하니, 노래실력 한번 발휘해볼 기회도 얻지 못한 채 꿈을 접어야 했던 노년 동지들이 무려 2,800명이나 됐던 것이다.

사실 우리부부는 일생 노래부르기를 계속해왔다. 아내 박찬열은 사여자사범대학 성악과를 거쳐 24세 되던 해 1963년 서울시립가무단 합창대원으로 활동하던 매우적인 음색의 메조소프라노다.

그 후 내 아내가 돼 일생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문득 57세 되던 해에 성우학원, 연극교실을 거쳐 연극무대에 오르더니 12년 뒤인 69세 때 2008년 윤호진 연출 뮤지컬 '더브'에 캐스팅 되면서 프로세제로 뛰어들어 이후 2010년에는 대형 뮤지컬 '빌리엘리엇'의 할머니 역으로 캐스팅되는 등 야심만만한 늙이가 뮤지컬배우 할머니고, 나는 25년여 상도동 양재동 성당 성가대에서 노래하면서 작년부터 남성 시니어합창단에 나가며 활동 폭을 조금씩 늘려가는 매우 평범한, 그러나 나이에 비해서는 조금 젊고 힘찬 목소리를 갖고 있는 한 사람의 할아버지다.

나는 오디션에서 조두남 작곡 가곡 '산촌'을 노래했다. 내 노래가 끝나자 바로 와! 소리에 이어 박수. 그리고 이윽고 모두가 기립을 하는 것이 아닌가. (세상에! 내 노래가 이렇게 대접받다니) 놀랍고 반갑고 고맙다.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이 방송, 재방송되면서 2주일 뒤 나는 갑자기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이어서 아내 박찬열 차례다.

곡목은 뮤지컬 '빌리엘리엇'에서 나오는 Grandma Song(할머니 노래). 이노래엔 사연이 있다.

1910년 8월 한국 공연 당시 공개 오디션에서 구름같이 많은 인제들을

제치고 화려하게 캐스팅 됐으나 6개월간 200여회 공연중에 한번도 무대에 설 기회가 없었던 - 전담배우 평크가 없었다. - 아픈사연이 있는 그런 노래다.

드디어 아내가 노래하기 시작했다. 무대에 서고 싶었던 뜨거운 열망을 모두 담아 뮤지컬의 한 장면을 열연했고, 그것은 오디션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열정 넘치는 공연에 가까웠다. 마침내 아내에게도 큰 박수가 쏟아졌다.

내 귀에도 이 세상 72세 할머니 어느 누구도 아내처럼 그렇게 충실하게 박진감 넘치는 탄탄한 소리를 낼 수 없을 것 같았다. 훌륭한 공연이었고, 이 모습 또한 방송, 재방송되며 아내의 존재를 세상에 널리 확인시켜줬다.

모든 이들의 박수를 뒤로 하고 오디션장을 나설 때 드디어 아내 박찬

전국에 방송되면서, 내 핸드폰, 아내의 핸드폰, 집 전화, 컴퓨터 이메일로 축하전화와 메시지가 물 밀 듯 쏟아져 들어왔다. "잘 봤다", "멋있더라", "너무 반가웠어", "어쩐지 남편 그렇게 노래를 잘하니?", "언니 그레마 송 노래하는 장면 보고 너무 정해서 눈물이 났어. 언니가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없어 얼마나 안타까웠을가 생각하면서", "조형, 뭘 노랜 그렇게 잘해? 만능 스포츠맨인줄은 알았지만 참 대단하네.", "두 분을 안다는 것이 이렇게 자랑스러울 줄이야.", "두 분 놀라게 아름다웠어요.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부부는 하루 아침에 유명 연예인(?)이 됐다. 길을 걸어도, 지하철을 타도, 쇼핑을 해도 모두들 알아보고 반가워했다. 방송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번 오디션에 도전했던 것은 백번 잘한 일이었다고 그 성과도 내 예상과 기대를 훨씬 뛰어 넘는 것이었다.

노래란 온몸으로 하는 것이다. 목과 입으로만 좋은 소리를 만들 수 없다. 온 몸이 동원되어야 깊은 소리 힘찬소리 맑고 높은 소리를 만들 수 있다.

기본적인 기교만으로는 듣는 이에게 어필하는 소리를 만들어 낼 수 없다. 성악은 체력싸움이다. 늙어 갈수록 결국은 힘의 문제가 된다.

지금의 나로서는 앞으로 10년은 더 노래할 수 있도록 나는 노래 자체보다는 운동과 체력관리에 더욱 많은 시간을 내 삶의 시간표에 할당해 나갈 것이다.

TV 덕에 하루아침에 슈퍼스타

늙이가 뮤지컬 배우 할머니와

성가대로 내공 다진 할아버지,

10년 더 노래하려 체력단련 매진

열은 평생 멍에처럼 가져갈 뻔했던 Grandma Song을 마음 속에서 뉘출 수 있었다. 이제 그 노래를 못 불러 끓어오르던 울분을 모두 떨쳐버릴 수 있었다.

7월 초순 우리의 모습이 예고편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 7월 10일 일요일 오후 5시 KBS TV2 해피선데이를 통해 우리의 오디션 모습이



함께 물려다니니 와이리 좋노~

일선회<一禪會> 일본 북해도여행기

지난 8월5일 MBC사우회 동료 몇 사람과 3박4일 일정으로 일본 북해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다.

관광회사의 패키지여행이어서 짜여진 일정에 따라 노보리베츠(登別)의 지옥계곡, 온천욕, 도야(洞爺)의 도야호수, 유람선승선, 소와신산(昭和新山) 활화산(活火山), 오타루(小樽)의 운하, 가라스공예관, 삿포로(札幌)의 북해도 구 도청사, 시계탑 오오도리(大通)공원등을 관광했다.

짧은 일정에 관광지를 촉박하게 짜여져 장님 여행하듯 스치고 지나가는 기분의 여행이라고 할까. 아무튼 여유있게 돌아볼 수 있는 일정은 아니어서 아쉬움이 남았다.

북해도, 우리나라(남한)의 경복도를 제외한 넓은 면적에 인구는 5백40만. 여름관광보다는 겨울의 눈축제 관광이 더 관심을 끄는 관광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여행사, 가이드의 설명에 따르면 북해도 삿포로(札幌)시 인구 1백83만명의 도시에서 1971년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해마다 2월에 치러지는 눈축제에 관광객 인파가 200만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

처음에는 중학교 학생들이 눈싸움으로 시작 된 눈축제가 지금은 북해도의 3대축제로 규모가 커졌고 매년 2월 2~3km에 이르는 오오도리(大通)공원에서 치러진다고 했다.

눈썰매 행사를 위해 일본자위대 차량 6천7백대가 동원되어 제설작업을 돕고 있으며 강설량은 1m이상이라고 한다.

이번 여행에서 북해도 구청사의 자료관을 둘러 보는 가운데 북해도 농업대학(현 국립북해도대학) 초대 총장인 미국인 크라크씨가 퇴임하며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야망을 가져라"(Boys, Be



▶왼편부터 이진식, 박기병(글쓴이), 윤여복, 김민식, 박준하 등 일선회 멤버. 1994년에 만든 북한산 등산 친목회다

Ambitious!)고 말하는 장면을 그린 한 폭의 그림이 감명을 안겨 주었다. 그리고 여행사 직원들 말에 따르면 2004년 한·일 공동으로 치러진 월드컵축구대회를 계기로 한류열풍이 일본열도를 치

99년부터 함께 국내외여행 8번이나
지금은 북한산 등산대신 점심모임가져

면서 한국에 대한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아직 일부 일본 극우파에서는 한류 열풍을 견제하는 시위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별로 영향이 없다는 이야기다. 어쨌든 일본인의 몸에 밴 친절과 청결함은 배울점이다.

거리에 휴지통이 없다. 휴지, 쓰레기는 자기가

챙겨 집이나 버리는 것이며 건물 옥상에 깨끗하게 정돈된 모습에는 할 말 잊게 했다.

이번 북해도 여행은 일선회(一禪會)의 모임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 모임은 MBC재직 사우들이 체력단련과 친목도모를 위해 매주 북한산 등산을 하던 1994년 4월 북한산 등산로 중턱에 자리하고 있는 사찰 일선사(一禪寺)를 따서 모임 이름을 정했다.

회원은 김민식 전 MBC전무·사우회 회장, 윤여복 전 MBC상무, 박준하 전 MBC프로덕션 상무, 이진식 전 MBC미술센터이사, 박기병 전 춘천 MBC사장 등이다. 일선회는 매주 주말 일요일 북한산 등산을 하며 우의를 돈독히하며 매달 3만원의 회비를 모아 기금을 조성해서 해외 및 국내 여행의 경비로 충당했다.

일부 회원의 건강 때문에 2009년부터는 등산을 하지 않고 매달 두차례 금요일 점심식사모임으로 바꾸었다.

해외여행은 1999년 3월25일에 태국 치앙마이에 골프 관광을 2004년 4월10일에는 중국 산둥성(山東省)연태에 골프관광여행을 2007년 7월에는 일본 아오모리(靑森) 아카다(秋田)지방 관광여행을 그리고 이번에 일본 북해도 여행을 했다.

국내여행은 2003년 6월에 대구,경주 문화유적지를 답사했고, 2005년 7월에는 울진 백암온천 삼척을 여행했다.

2008년 10월에는 금산, 대전, 유성온천을 다녀왔다. 2009년 4월에 부산 한려수도를 여행했다.

여행을 하면서 모임의 활성화는 물론 새로운 것을 접하게 되어 생활의 활력을 느낄 수가 있고 더욱이 사우간의 우정이 굳건해져 모임의 보람이 컸다.

연회비 내신분들

※연회비는 1년에 2만원이며, 외환은행 서대문지점 071-13-14297-3 문화방송사우회로 보내주시요.

평생회비

윤재복(관리)7/20 오준상(기술)7/20 조항민(보도)7/26 배귀섭(보도)8/03
구본학(보도)8/17 이학귀(관리)8/30 전미경(편제)9/01 이성수(보도)10/04

연회비

7월 강효복(11) 김동오(11) 김순환(11) 김종창(11) 노홍식(11) 박성숙(10)
방남순(07~11) 백하현(11~15) 이상훈(관리, 10) 이연현(11~15)
이재호(09~10) 이종수(11) 이한식(12) 조정구(10~13) 조춘희(11)
최준식(10~15) 하영석(09~11)8월 강효복(12) 금기우(06~10) 김금봉(14) 김진호(11) 남익균(11) 배귀섭(10)
엄기영(11) 오승룡(11) 이동섭(09~11) 이종숙(11) 전미경(04~10) 전한호(11)
최근수(12)9월 김태인(11) 연규철(12) 오명균(11) 오인환(10~13) 이재원(11)
김종현(12~13) 염재웅(12) 조부성(09) 최양목(10~11) 최우철(11)
황진옥(10~11)

경조사항

결혼

윤상준(편제) 딸 7/23 윤건일(기술)차녀 8/20 황우성(관리)아들 9/03
최호철(관리)차녀 9/03 박종진(편제)장녀 9/17 문병화(기술)장남 9/17
이현규(편제)차남 9/17 장영준(보도)차남 9/24 조성식(업무)장남 10/01
김명수(편제)장남 10/01 김종현(기술)차녀 10/21 윤남현(대전)아들 10/22
신건옥(관리)장녀 10/22 이봉수(편제)장녀 10/29 이하걸(관리)장녀 10/30
한박무(보도)차남 12/3

부음

김상기(보도, 전역수사장)장인상 7/14 박유명(관리)장모상 7/16
이재원(관리)장인상 7/24 장 경(보도)부친상 7/26 전미경(편제)시모상 8/09
신원호(기술)장인상 8/10 박해선(대구)장모상 8/11 정관식(부산)장모상 8/26
박연원(편제)장모상 9/04 방기천(기술)장모상 9/07 김태영(전주)모친상 9/22
정태성(보도)모친상 9/23-나수성(미주)회원, 7월21일 미국 LA에서 노환으로 별세. 올해 76세.
1964년 음악PD로 MBC에 입사해 '가요산맥' '10대가수쇼' '대하가요제' 등의 프
로를 연출했으며 '나규호'라는 예명으로 배호가 부른 '안개속에 가버린 사람' '누가
울어'를 비롯해 조영남의 '마지막편지' 나훈아의 '헤어져도 사랑만은' 등 수많은 히
트곡을 작곡하기도 했다. 1980년 미국으로 이민갔다.-서명규(기술)회원, 8월24일 자택에서 별세. 올해 76세.
2005년, 폐암 3기 진단을 받았으나 강한 의지로 극복하고 완쾌했다. 최근에는 부인
의 치매로 고생하기도 했다. 1972년에 입사해 20년동안 대전, 충주, 서울MBC에서
라디오 기술발전에 기여했다.

경사

팔순 | 이종휘(기술) 10/01 이원일(미주) 10/05 임택근(Ann) 11/11
김종대(대구) 11/20
고희 | 강영석(기술) 10/08 하순봉(보도) 10/08 조지균(미주) 10/09
김점식(전주) 12/03 최영인(보도) 12/08 하영석(보도) 12/08
김봉성(업무) 12/12 박 옥(관리) 12/12 이철호(전주) 12/15
함명철(보도) 12/20 이원호(관리) 12/24 임재현(보도) 12/24
회갑 | 신형중(미주) 10/10 정재순(기술) 11/01 김주배(편제) 11/28
이상혁(업무) 11/28 박용홍(관리) 12/02 전병욱(관리) 12/13

올해 사우회 총년회 밤은 12월 15일!

퇴직후 1년안에 MBC사우회 가입해야

MBC를 퇴직한 사원이 MBC사우회에 입회하려면 퇴직후 1년안에 신청
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MBC를 퇴직한뒤 5년이 지났든 10년이 지났
든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사우회 입회가 가능했습니다.그러나 올 2월 정기총회 의결에 따라 2011년 1월1일 이후에 퇴직한 사우
들은 퇴직후 1년이 지나면 사우회에 입회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2010년 12월31일 이전에 퇴직한 사우들에게는 경과기간을 두어 올해까지
사우회에 입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우들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입회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혹시 이런 사우들을 알고 계시는 회원님들께서는 사우회 가입을 독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화/주소 변경

|편제|

김기택 010-6486-3307
김병훈 대전시 동구 용원동258-5 대호빌라 가-201
김일수 010-9363-1200
김종창 010-4155-6638
노영인 02-790-6045 용산구 이태원1동 청화A 1-901
안호명 강서구 염창동 272-28 우성A 301-1005
장기옥 은평구 증산동 2-1 백련빌라 101호
장명호 010-3714-4433
전진권 동대문구 장안동 687 신성미소지움 104-1603
최정숙 010-7931-7741

|보도|

고성광 010-8718-5891
김창식 031-713-9289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15-4 두산위브제니스 A-1701
이성해 010-5315-0123
정영환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989 한성필하우스 501-201
정 진 010-9052-8338
편일평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녹원마을 새천년그랑빌 511-802

|Ann|

방남순 010-5233-6795 02-3471-9996
송재익 통영시 도산면 저산유촌길 37
조석영 010-2246-3518

|기술|

김학윤 관악구 신림4동 526-17 (201호)
이영철 010-5204-1468
안영제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134(화원)
윤상호 010-5283-3734
황진옥 010-9105-1328
박종규 010-8910-2267

|관리|

김영금 노원구 하계동 284 한신A 4-810
오영환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1동2041 에이스10차 101-1306
황의철 010-6302-6201
윤봉기 010-4746-7220
이용재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연곡리 407-2
이원호 010-5386-3956
이은준 010-9797-4928 동작구 흑석동 센트레빌 104-1101
정준모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1093 쌍용스윗하임 105-1901
최호철 010-2643 6685
황우성 구로구 신도림동 동아A 106-2301

|업무|

이윤하 010-9085-2743 02-2273-9907
송파구방이동41-3 지역사회교육회관(3층)선바이오투

|대전|

성창용 양천구 신정3동1321 신정이펜하우스 110-202

|대구|

손영조 010-2801-4244

|전주|

이양휘 010-9860-5217

신규입회

07/20 尹在福(관리) 010-8955-3873, 070-8281-2355 동작구 상도동 414 건영A 102-1109
07/22 吳俊相(기술) 010-9105-2347, 02-455-8523 광진구 광장동 383 워커힐빌리지 102-102
07/26 趙恒旻(보도) 010-5287-1589, 031-903-0589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숲속마을 604-901
08/17 具本鶴(보도) 010-8578-7862, 02-2147-0555 송파구 잠실3동 레이크펠리스A 108-1102
08/27 李學貴(관리) 010-9274-6050, 02-2662-8921 양천구 신월6동 592-15
09/19 崔宇哲(ANN) 010-8955-3781, 031-716-9503 성남시 분당구 구마동 하안마을 308-302
10/04 李誠洙(보도) 010-5249-9318, 02-6268-0909 은평구 불광1동638 북한산래미안 102-1002
10/06 金聖洙(보도) 010-9274-6150 031-924-8780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문촌마을 1804-1102

연회비 장기 미납자 경조비 지급 정리

연회비 장기 미납으로 경조비를 지급받지 못한 회원이 10월15일 현재
1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무처에 따르면 5년이상 연회비를 내지않아 올
해 경조비 지급이 정지된 회원은 별세회원 3명을 비롯해서 팔순 5명, 고희
6명, 회갑 4명 그리고 시모상 1명등 모두 19명이다.사무처는 올 2월25일에 열린 정기총회에서 연회비 장기 미납자에 대한
경조비 지급정지안이 의결된 뒤 5년이상 연회비 미납자에게 여러차례 안
내장을 보내 연회비 납부를 독려한 바 있다.(사우회 경조규정 제3조 3항 : 연회비를 5년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 되지만, 경조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단, 회비를
납부한 이후에 발생되는 경조비부터 지급한다.)

창사 50주년 기획 인사동스토리



김용빈
사우회 이사

MBC 탄생신화 발상지 인사동 사옥 추억여행하세요

종로구 인사동 15번지 동일가구 건물을 끼고 낙원동 시장쪽으로 보면 간판도 없는 선술집 옆의 조그만 문이 있다. 이곳이 문화방송의 정문이다.

1, 2층은 동일가구에서 쓰고 있으며 3, 4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옥상을 증축하여 5층에 방송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와 방송 송출을 위한 주조정실이 위치하여 3개층을 임대 사용하고 있다.

좁은 계단을 올라 2층에는 경비실과 안내실을 겸한 반평 정도 한사람이 겨우 앉아 있을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출퇴근 확인, 직원면회, 방송국 출연자 모두가 확인이 되어야 출입이 가능한 통제 구역의 판문이었다.

인사동 15번지 문화방송 건물을 다시 찾아서 방문을 해보자 2층 경비실을 지나 계단을 올라 3층 입구에서 좌측으로 제일먼저 보이는 부서가 보도부, 조금 복도를 가면 정면에 송무부가 있고, 복도를 돌아서 들어가면 송무, 전무, 사장실과 좌측으로 화장실이 있는 곳이다.

사무실 한쪽에 위치한 계단은 보도국 방송 제작을 편집과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계단 밑에는 회사 인쇄물을 만드는 발간실이 위치하고 있다.

계단을 다시 올라 4층으로 가면 창

가난하지만 즐겁게 일하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문 쪽 복도를 끼고 들어와 좌측으로 굽으면서 첫 번째 문이 감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음악과가 있는 곳, 3층 보도부에서 연결되는 계단이 음반과 녹음테이프 보관과 있는 곳이다.

그 계단을 이용하여 음반을 정리해 놓고 그 밑 공간을 이용한 것이 중계 공개 장비 창고와 정비하는 장소로 사용하는 곳이다.

복도에서 우측에는 방송부가 위치하고 조금 더 들어가면 편집, 기술, 아나운서실과 화장실이 있다.

5층은 옥상을 개조하여 지붕을 증축하면서 스튜디오를 만든 곳으로 입구는 출연자의 접견을 위하여 복도가 조금 넓다.

좌측으로 B스튜디오가 위치하고 우측으로는 기술 스텝의 대기실 겸 출연자 대기실과 기기실이 있고, 다음 문을 열고 들어가면 A 부스와 주조정실이 나온다.

복도와 의 사이를 이용한 공간은 방송국 전체의 유일한 공간이다. 64년 입사당시 이곳은 우리 신입사원의 교육을 위한 강의실과 대기실로 활용되다가 평주, 대진, 진주, 직할국이 개국한 후 지방본 방송을 복사하는 복사실이 위치해 있었다. 이곳은 통제구역으로 사원들도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곳이기도 하였다.

B 스튜디오를 지나면 기술과장실과 화장실이 나오고 복도에서 우측으로 굽어서 창가에서 우측으로는 교향실과 주조정실 B 부스와 주조정실 근무자의 숙직실이 있고, 다시 좌측복도로 굽어 창을 끼고 걸어가면 A 스튜디오가 나온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인사동 15번지의 방송국 전체를 설명한 것이다.

공개방송과 인사동 지계관 할아버지
요즈음 라디오 방송의 공개 방송을 위하여 장비를 운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인사동 시절의 장

비 운반은 지금 사람들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화방송의 공개홀이 종로 예식장 신관 2층 제일 큰 홀이다. 인사동 본사에서 종로 예식장까지 장비를 운반하는 방법은 내가 입사했을 때는 주변에 있는 운반책 "니어카"를 불러서 정문에서 종로 예식장 신관 앞까지 운반하면 말단 직원인 우리들이 들어서 운반하여 설치작업을 하고 철수도 반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지계를 전 할아버지가 오셔서 왜 그렇게 어렵게 일을 하느냐 하고 물었다. 자신이 하던 회사 창고부터 예식장 2층 기기실 까지 운반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시험 삼아 한번 하자고 선배들과 합의하여 할아버지와 약속을 했다.

공개방송 1시간 전에 정확하게 정문에 대기하고 짙 한가마 무게 80Kg 정도를 지고 1Km정도 되는 종로 예식장까지 한번도 쉬지 않고 단숨에 갔다.

처음에는 매우 걱정을 했다 노인 할아버지가 짐을 지고 가다가 사고 발생하면 장비의 파손 문제 또는 보상 문제등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아 두려워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더 질수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걱정하지 말고 맞춰 달라고 했다.

선배들과 의논 끝에 지계 할아버지는 문화방송 전속 공개장비 운반으로 지정을 받았다.

물론 회사에서 지정한 전문 지정 운반 담당은 아니지만 공개반 우리는 마음 든든한 할아버지로 믿고 같이 생활을 했다.

몇 년 동안 말성 한번 없이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정확하게 약속장소에 정확하게 운반하신 그 고마움은 지금도 있을 수 없다.

처음 운반 할 때의 요금이 500원하다가 1000원으로 인상하다가 천오백원까지 인상했었다.

그것도 회사사 정동으로 이사를 하면

서 할아버지는 고정된 수입원을 잃게되는 할아버지의 아쉬움을 생각하면 미안한 생각이 든다.

인사동의 생활은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즐거움과 기쁨으로 항상 만족한 일의 보람을 찾아서 누구보다 먼저 일을 찾아서하는 전통을 갖고 있어, 쉬는 것도 자유로 일하는 것도 자유로 서로 믿고 존경하면서 서로 돕고 위로하면서 고티를 함께 하며 생활을 했다.

특히 지방의 공개방송을 할 경우는 교통편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임해 공개방송의 경우는 비행기를 대절하여 출연자와 모든 스텝이 같이 출발하여 공개방송을 끝내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철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저녁 11시경에 서울역에 집합하여 기차 한칸을 대절하여 밤새워 현장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기술직 사원들은 역에서부터 방송 현장까지의 장비 운반이 제일 큰 걱정거리다 인사동의 지계 할아버지가 있으면 간단하지만 역에서 현장까지 많은 장비를 운반하는데는 각역마다 붉은 모자 테두리에 검정 유니폼을 입은 "구루마" 아저씨를 이용한다.

예를 들면 서울역에 도착하면 동쪽에 있는 화물 취급장소에 가서 설비를 하여 후에 내려져 있는 장비를 싣고 서울역을 나와 염천교 쪽 차도로 나와 남대문 시장앞을 돌아서 신세계백화점 앞으로 미도파, 명동앞을 지나 조흥은행을 지나 화신앞과 서울 예식장을 지나서 인사동으로 들어 간다.

회사 앞 도로변에 장비를 내려면 그곳에서 4층까지는 우리 차례가 된다.

스튜디오 한 귀퉁이에서 날밤을 새우고 다음날 일을 계속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다.

한심하기도 하고 보람도 있고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소재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 당시는 시간의 수당도 없고 철야근 수당도 없이 봉급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불만을 가질 수도 없고 불만이 있을 수도 없었다.

회원동정



정홍보(보도)

서울대 초빙교수
전 춘천MBC사장.
8월1일 방송문화진흥회 석좌교수에 선정됐다. 방문진 석좌교수는 서울대에 상근 형태로 근무하며 2학기부터 언론정보학과 초빙교수로 중급저널리즘 강의하고 있다.



오효진(보도)

충북대에서 문학박사학위
전 청원군수. 8월24일 충북대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학위 논문은 '이광수 문학에 나타난 정치적 압력 대응양상', 석사학위를 받은지 36년만이다.



서정훈(보도)

한세대 초빙교수
전 여수MBC사장.
9월1일부터 한세대학교 초빙교수겸 글로벌 러시아연구소장으로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다.



전종건(관리)

SBS미디어엔 추진단장
전 OBS부사장.
7월25일 SBS홀딩스 산하 미디어엔 추진단장으로 선임됐다. 미디어엔 추진단은 정부의 미디어법안이 확정되면 추후 회사를 설립하게 된다.



김중오(보도)

서울지역으로 송신확대
OBS사장-전대구MBC사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역의 재송신 승인에 따라 8월1일부터 서울 어디서나 OBS 시청이 가능하게 됐다. 김사장은 이에따라 OBS가 서울, 인천, 경기도지 2,400만 시청권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박혜영(연예)

세명대 정교수 부임
8월 25일 세명대학교 방송연예학과 정교수 부임, 9월24일 조수미 데뷔 25주년 기념콘서트 연출
(울림평곡원 88잔디마당 특설무대), 2011제야콘서트 연출진행 중 (세종문화회관대극장)



이채원(관리)

불교방송사장 취임
전 강릉MBC사장.
9월26일에 열린 불교방송 이사회에서 선임 사장으로 선임됐다.
이사장은 28일 취임식을 가졌으며 임기는 2015년까지 4년이다.



유혜자(연예)

음악에세이 「음악의 에스프레소」를 출간
9월30일 음악에세이집 「음악의 에스프레소」를 출간했다. 유혜자는 올해 조경희 수필문학상을 수상한데 이어 음악에세이로는 4번째이자 동산 14번째 수필집을 출간함으로써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



김상욱(연예)

"외워서 남주는 유머" 책출간 및 전시회
(사)윤속미술회 회장
재미있는 유머를 모아 "외워서 남주는 유머"를 출간했다. 개그맨 전유성씨가 추천사를 썼다. 또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종로구 공평동 "공평화랑"에서 MBC 본사가 주최하고 윤속미술회가 주관하는 시각장애학생 미술작품전 "마음으로 바꾸세요"를 갖는다.

목포 MBC



목포 MBC 2011년 연중캠페인

2011 세계속의 남도
남도에서 푸른 활력을...



성공기원

2011 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

2011년 10월 14일(금) ~ 16일(일)

<http://www.koreangp.kr>

